



지리산은 8·15 이후의 한국현대사가 담긴 곳이며 그 의미가 변질·왜곡된 未完의 곳이라 말하는 朴泰洵씨

## 「實錄智異山」 집필하는 朴泰洵씨

**지금 집필중**

『智異山』을 단순히 등산이나 관광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지리산은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보호되고 역사운동의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본업인 소설 쓰는 일로서보다 문화운동과 관련된 글이나 역사기행문인 「국도와 민중」으로 더 잘 알려진 朴泰洵씨(45)는 최근 「實錄智異山」의 집필을 시작했다.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될 이 책은 현재 기본구상과 전개부분 2백매 정도가 완성됐다.

역사적·문화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지리산의 모든 것을 재구성해 보겠다는 朴泰洵씨는 이 책을 전개시키는 기본 골격으로 삼을 모델로 병자호란 때 중국에서 귀화한 石氏家와 피아골의 禹氏家, 그리고 花開의 부농이었던 河氏家를 몇달동안 철저히 취재해 놓고 있다. 이 세 가문은 모두 구한말부터 6·25까지의 근대사를 지리산과 함께 한 가문으로, 지리산의 恨과 상처를 증언할만한 전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조선말의 진주민란·일제하의 의병활동과 소작쟁의·8·15직전의 건국동맹·8·15직후의 여순반란사건·거창양민학살사건 등 한국근대사에서 첨예했던 갈등들이 맞부딪힌 곳이 바로 지리산이요. 또 고인들을 비롯 구석기·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갖가지 세시풍속, 그리고 초가·전세집 등 민중문화의 저장소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리산은 문학작품의 빈번한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을 그는 강조한다.

백제의 가요인 「지리산가」 「무등산가」 「정읍사」 「선운산가」에서부터 민중문화의 집대성이라 일컬어지는 판소리의 경우, 「춘향가」 「홍보가」 「가루지기타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리산과 직접간접의 관련을 맺고 있다.

또 현대에 들어와서 「황토기」(金東里) 「잃어버린 사람들」(黃順元)과 최근의 「智異山」(李炳注) 「土地」(朴景利) 「太白山脈」(趙廷來) 「겨울 골짜기」(金源一) 등 많은 문학작품들이 지리산을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지리산의 민중성 때문이라는 것이 朴泰洵씨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8·15 이후 사상적 대립으로 무고하게 죽거나 죽음의 의미가 해명되지 않은 30만~60만의 영혼을 위한 위령탑 하나없는 현실을 안타까와 한다.

『지리산은 8·15 이후의 한국 현대사가 담겨있는 곳이며 그 의미가 변질·왜곡되어 있는 未完의 곳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곳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맺힌恨이 역사적인 재조명을 받아 풀리기를 그는 갈구한다.

朴泰洵씨가 지리산에 처음 가 본 것은 1963년 대학 재학 중의 일. 구례 화엄사 주변을 둘러 보면서 「무엇인가 있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한두달에 한번씩은 4박5일 정도로 꼭 찾아가면서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취지에서 3권 정도의 「實錄智異山」을 구상하게 되었다. 『본격적 집필은 곧 지리산에 내려가 터를 잡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 엄창호 기자



원서의 관련사진을 어렵게 구해 제작중인 도서출판 광장

## 한 건축가의 작가적 고집을 다룬 랜드의 소설 「마천루」

**지금 제작중**

아기자기한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문화공간이 많이 모여있는 대학로. 문예극장 북쪽 골목의 한목빌딩 3층에

들어서면 간판 세계가 나란히 붙어있는 것이 눈에 띈다. 「건축연구소 광장」 「도서출판 광장」 「풍수지리연구회」. 이 사무실은 평소에는 건축설계사무실의 구실을 하며, 때때로 출판사 편집실도 되곤 하는데, 15명의 건축디자이너들이 널찍한 책상을 앞에 놓고 있다. 벽에는 투시도, 샤르트르성당의 아름다운 사진들과 설계도가 걸려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

『책을 자주 출판하지는 않으나 필요할 때 비용이나 상업성에 개의치않고 출판한다』는 도서출판 광장(대표 金洵·45세)은 건축·기술에 관한 서적을 주로 출판해왔다. 『이번에 출판하려는 책은 미국의 여류작가 에이 랜드(Ayn Rand)가 1925년에 쓴 「Fountain Head」라는 소설이어요. 1949년에 영화화 되었는데, 영화 대본각색도 랜드 자신이 했다고 합니다. 게리쿠퍼와 패트리셔 날이 共演했던 이 영화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마천루」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지요』

金洵씨는 원서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얻었으며, 화보용으로 L. A. 주재 한국문화원을 통해 유니버설사의 비디오 테이프를 구했다고 한다. 번역은 許鍾烈씨가 맡아했는데, 문장이 어렵고 묘사가 길며, 무수히 튀어나오는 새 어휘들 때문에 번역이 어려워 3년이상 걸렸다. 또 번역해 놓은 글들도 건축전문가인

金사장이 일부 다듬었다고 한다. 『소설을 출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소설이긴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적 용어와 묘사로 독자도 한정된 숫자일 것같고 얼마나 팔릴 것이냐보다는 책을 내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지요』

김 소설이어서 上·中·下 3권으로 엮어지며 책제목은 「마천루」로 할 계획이다. 영화와 스틸사진을 되도록 많이 넣어 그 영화를 본 올드팬들에겐 감회가 깊은 책이 될 듯하다. 원고지 6천매 분량을 교정 본 직원 李寶永씨(25세)는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심리묘사도 많아 좀 어렵긴 하나 예술가의 도도한 정신과 상대여자의 독점욕 등이 어우러져 재미가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 하워드 로크는 작가적 고집이 강한 건축가로서, 코린트식·이오니아식·도리아식 등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권위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대세와 외로이 싸우는 예술가입니다』 작가는 소설 주인공이 실재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일화들은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실제 얘기들과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 金洵씨의 얘기.

『선구자란 언제나 외로우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선구자적 의식과 행동을 가져야만 한다』는 지론을 가진 金씨는 건축분야의 가치 정립을 위해 그간 金洵住宅作品集, 건축평론집 「우리시대의 거울」, 金洵古建築시리즈(비원·수원성 등), 「건축가 없는 건축」(버나드 루도프스키) 등 15권의 책을 출간한 바 있다.

— 이효숙 기자